

아리울의 군산

발행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전화 063-443-8283 | 팩스 063-443-8284 | <http://museum.gunsan.go.kr> | <http://mum.gunsan.go.kr>

묵묵히 나라를 위해 땀방울과 핏방울 떨어뜨린 노장 '최호장군'

조선후기 7년간 약 80개월에 걸친 긴 전쟁이었던 임진왜란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 황급히 떠나는 피란길에는 임금을 지키는 호위병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선조는 평소 신뢰하는 노장 최호 장군에게 그 일을 부탁하였다. 이때 최호장군은 임금의 피란길을 뒤에서 말없이 끝까지 지켜주셨다. 묵묵히 호위를 맡은 최호장군 덕분에 선조대왕은 무사히 서울에서 개성, 개성에서 평양, 평양에서 의주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다.

최호장군은 현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최호장군의 유적지와 최호장군이 그 당시 사용했었던 물건들이 군산에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있다. (그중 몇가지 물건들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그 당시 충원공 최호장군의 4년 10월 중시갑과에 1등으로 장원급제했던 교지와 조선시대때 사대양반만이 신을 수 있었던 엄격한 신분과 권위의상징인 갓신, 앞서 말했던 선조대왕이 임진왜란을 당하였을 때 군산출신 최호장군에게 내리신 호신용 보검 '삼인보검호신장영'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있는 칼이 있다.

선조의 신임을 받아가며 5개월 동안 임금의 호위와 의주를 지키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러기에 후일 무장으로는 최고 직책을 받기까지했다. 당시 침략자 왜군은 군사들이 소총을 무장하고 전쟁에 익숙한 병사들이었고, 무장들은 저마다 전공을 세우려 혈안이 되어있었으며, 이런 침략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최호 장군의 병사는 소수의 병력으로 유격전술을 구사하여 지리에 불리한 왜군을 괴롭혔다. 가토오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게 되어 최호장군의 군대는 의주를 수호하는 어려운 일에 큰 공을 세웠다. 오만하던 왜군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의병과 명나라 지원군의 증가 그리고 보급의 차단, 지리적 불리함과 기후의 악조건 등으로 전세가 악화되어 갔고, 화의가 논의 되면서 그들은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후에 선조는 환도했고, 계속되는 전쟁 끝에 1597년 7월 16일 새벽 사기 충전한 적 수군의 총공격의 기습을 받아 연합함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패를 당하였다. 선봉장 충청수사 최호 장군은 용전분투 최후까지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집중포화의 공격을 받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후일 선조는 최호장군의 전사소식을 듣고 낙루하면서 예관을 보내어 정중하게 치제하도록 제문을 지어 보냈다고 한다. 최호장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6년 후 충원공의 시호를 받았다.

군산에는 최공의 후손 최호선이 최호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 자리해 있으며,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조용한 최호장군의 유지에 불어오는 바람에서 당시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최호장군의 숨결을 느끼고 간다.

*중과부적 - 적은 수효가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치 제 - 공신이 죽은 경우,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내려 그 공신을 제사 지냄. 또는 그 제사

*제 문 - 죽은 사람을 조상하는 글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공존하는 군산세관

옛 군산세관과 현 세관은 서로 지척에 있다. 옛 군산세관은 유럽 중세 건축양식의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단 3곳만 남아있어 건축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한다. 옛 군산 세관은 벨기에에서 수입된 붉은 벽돌을 사용해 단층 건물로 건축되었다.

이런 이국적인 외향을 가진 세관의 본래 사용 의도는 군산에 입출항하는 외국 선박에 관세를 부과해 대한제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세 수입은 대부분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금 상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옛 군산 세관에 방문해 보면 가짜상품 전시실에서 각종 명품에 대한 진품과 가품의 구분법과 옛날 군산의 모습 세관장의 제복 등등 흥미있는 것들이 많다. 옛 군산세관 건물은 1910년 국권침탈 이후 1945년 해방까지 곡식이 풍부한 호남지방에서 곡식 수탈은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나 역사의 서러움을 전해 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 이한솔(고2)

현존하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

군산의 동국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사찰이며 우리민족의 치욕적인 역사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국사는 1909년에 일본 승려 내전불관 스님이 금강선사란 이름으로 개창하고, 1913년에 대웅전을 신축하였다. 8·15 광복 이후 김남곡 스님이 사찰 이름을 <海東大韓民國의 절>이란 뜻을 지닌 동국사로 바꿨다.

대웅전은 정면 (3)5칸, 측면 5칸 정방형 단층팔자지붕 홑처마형식의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곱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지붕물매는 75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고온다습한 일본 기후의 영향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건물외벽에 미서기문이 많으며, 용마루는 일직선으로 한국의 전통사찰과는 색다른 양식을 띠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불교의 포교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이다.

불교 교주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그의 제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서 있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동국사의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지금으로부터 363년 전인 조선 효종 1년 다시 말해 서기 1650년에 만들어졌고 안치 장소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 건물이다. 불상은 조선시대 것이지만 일본의 절인 동국사에 있는 것이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 까닭은 해방이 되면서 동국사에 있던 일본 불상은 일본으로 옮겨져 동국사 법당에는 불상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동국사 주지 김남곡 스님이 김제 금산사의 양해를 구해 삼존불상을 군산 동국사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국사 불상에서 불상 보다 400~5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373점이나 되는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이란 부처의 배 부분에 감추어진 불교의 신앙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뜻하고 이 유물들은 불상 제작 당시 사회문화상을 알 수 있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한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과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일제 강점기 시절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다보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생길 것이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 장성준

[현장인터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김중규 관리계장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관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원 도심 지역에 위치한 근대역사박물관은 매일 수백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의 자랑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김중규 관리계장을 만나 박물관의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Q: 박물관을 운영하기 전 군산시 학예연구사로 활동하셨는데 학예연구사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100점을 맞은 과목도 역사분야뿐이었지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역사관련 전공을 하게 되었고 지역사 공부도 계속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군산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게 되었지요.

Q: 처음부터 학예연구사의 일을 하셨나요?

: 중간에 직업은 여러번 바뀌었지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역사공부는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전주에서 직장 다닐때도 역사공부를 계속했었고 이후 책을 몇 권을 쓴 후에 또 다른 기회에 의해 이쪽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요.

Q: 구체적으로 학예연구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영어로 큐레이터라고 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전문직. 그것을 학예연구사라고 하지요. 박물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전시기획과 운영업무를 전담하게 되지요.

Q: 학예연구사로 활동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매 순간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Q: 일부사람들이 군산의 근대역사에 대해 '일재의 잔재다.', '없애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산의 근대역사는 일재의 잔재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60~70년 전에 이 땅도, 하늘도, 우리땅이 아니었다는 치욕의 시간을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잊어가는 것 같아요. 군산의 근대문화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수탈당했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알려주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애국애족의 공간으로써, 수탈의 시대를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는 공간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신흥동 일본식가옥, 이영춘가옥 같은 근대문화유산을 박물관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주제 하에 각 건물의 특징을 나누는 것을 통해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어요.

아마도 박물관이 총괄적인 안내를 하는 인포메이션적인 공간이라면, 각각의 근대문화유산은 나름대로의 주제들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나 공간들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Q: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13번째로 만들어졌으니, 군산이 전라북도 3시중에 하나인것을 보면 늦게 만들어진 박물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늦게 만들어진 대신에 장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좀 더 시민 친화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박물관을 만들어 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 박물관이 아니라 근대사 특화 박물관으로 건립된 점도 참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 같고, 향후에도 시민중심적인 박물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Q:학예연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충고나 조언이 있다면?

: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겠지만, 학예사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할 때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보면 학예사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박사도 되고, 기능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앞뒤 따지지 말고 있는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더욱 열심히 하면서 글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요즘은 업무가 바빠다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동안도 군산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왔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특별한 계획이라 생각해요.

한편 김종규 관리계장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 現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계장으로 재직중이며 저서로는 ‘군산역사이야기’, ‘군산답사여행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당나라군의 ‘백제공격루트 확인연구’,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 변화과정’ 등 다수의 논문 등이 있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 민경원(고2)